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5월 7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12장 1-8절

설교제목 :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레위기 1-10장은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의적 기록입니다. 레위기 11-27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룹니다. 한마디로 삶의 기록입니다. 레위기는 제의적 기록에서 삶의 기록으로 나아갑니다. 제의적 기록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반면 삶의 기록은 먼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레위기 11장은 음식규례가 나옵니다. 음식규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고전10:31) 더불어, 레위기 12장은 가정의 기록을 다룹니다. 성전이 말하는 성전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가 우리의 육신입니다. 둘째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셋째가 교회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둘째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셋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요소는 우리의 육신과 가정과 교회공동체에 모두 해당합니다. 육신과 가정과 교회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곳은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가정과 교회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복잡한 만큼 단일 해법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육아와 주거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확실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미 출산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출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레위기는 출산 이후의 산모의 상태를 부정하다고 합니다.(2절) 부정하는 의미가 잘못된 상태, 죄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산은 결코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부정하다는 것을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언크린하다(unclean)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레위기 법은 출산한 여인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우선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7일 동안 조심하고 33일 동안을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2절, 4절) 산모가 남자아이를 출산할 경우 총 40일을 격리되어야 합니다. 반면 산모가 여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14일 동안 조심하고 66일을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5절) 산모가 여자아이를 출산할 경우 총 80일을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산모가 출산 이후에 격리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산혈이 깨끗하게 되기 위함입니다.(4절, 5절, 7절) 다시 말해서 피를 깨끗하게 하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출산으로 인해 무더기로 흘린 피를 보충함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기의 면역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출산한 산모를 격리하는 것은 실제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 위생적인 이유가 큼니다. 그러면 왜 산모가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을 때보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기간이 두 배로 많아집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에 명확한 성경적 이유를 제시할 수 없으나, 출산이란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성의 신체 기관은 출산을 위해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는 출산을 위해서 남성들보다

더 복잡하고 정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출산을 담당하게 될 여자 아이의 탄생은 더 주위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 아이보다 두 배의 기간을 보호하는 것은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율법이 여성과 아이의 생명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결국 출산에 있어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보호장치입니다. 그리고 산모의 정결기간이 마치면 산모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6절) 주목할 사실은 속죄제에 비해 번제를 먼저 드리게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제사는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번제가 죄와 상관이 없는 경우 번제의 목적은 전적드림, 헌신입니다. 따라서 산모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비록 산모의 태에서 자녀가 출산했지만, 자녀를 부모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가지지만,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더불어, 속죄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정결케 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갓 출생한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갓 태어난 아기도,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선교적 기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제일 가깝고 중요한 선교사가 됩니다. 더불어 부모는 자녀를 정결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3절)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는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말씀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가정의 부모에게 위임하셨습니다.(신6:6-7, 엡6:4)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남의 자녀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도,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데까지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자녀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산모가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 40일, 여자 아이를 출산하면 80일을 격리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왜 산모가 여자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낳을 때보다 격리되는 기간이 두 배가 많아지는지 설명해 봅시다.
- 3) 산모가 격리 기간이 끝나면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은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